

“불우의 기억들이 시의 얼룩들로 찾아왔다”

지리산문학상 수상 '발해로 가는 저녁' 펴낸 화산 출신 정운천 시인

가족사의 고단함·현실 모순 등 각기 다른 음색으로 그려내 '서정시 경신' 구현해 보고 싶어

“지나온 생의 이력이나 순간들이 저로 하여금 시인이 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삼대 중반에 소년 가장이 돼 생활이라는 터전에서 살아남아야 했지요. 상처들과 영욕의 순간들이 플러코스터를 타고 저를 지나갔던 셈이었습니다.”

화산 출신 정운천 시인은 '시인'이다. 시인이라는 레데어를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이들이 많은 세상에, 그는 말 그대로 시인으로 존재한다. 물론 시인은 이래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시를 써야 하는 운명을 타고 난 이들이 있다. 정운천 시인이 그렇다. 시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삶, 그의 표현대로 "불우의 기억들이 시의 얼룩들로 찾아왔다"는 것은 "시가 지니고 있는 어떤 마성 같은 것 속으로 끌려들어 갔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경림 시인은 그를 가리켜 "운명으로 살아낸 자리에 피어난 씩바귀 꽃 같다"고 표현한다.

그에게서는 시인의 품모와 분위기가 감돈다. 긴 머리에 까만 뿔테 안경이 잘 어울린다. 그러나 외양보다 그의 지나온 삶,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시적'이다. 그는 최근에 발간한 시집 '발해로 가는 저녁'(달출판사)을 내밀며 "앞으로의 삶에서는 제발 추락이나 암흑 같

은 시간들이 오지 않으면 한다"며 멋쩍게 웃었다.

이번 시집은 그에겐 여러 모로 의미가 있다. "제13회 지리산문학상 수상시집"이라는 타이틀도 그렇지만, 오랜만의 작품집이기 때문이다. "서정시 경신"이라는 의미를 구현해 보고 싶었다"는 말에서 시에 대한 고민의 단면이 읽힌다.

"지난 2000년도 초에 다섯 번째 시집을 내고 꽤나 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시를 쓰는 일에 매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동안은 문학과는 좀 동떨어진 일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문학과 동떨어진 일"이 어떤 의미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적잖은 시련의 시간이었을 것 같다. 시로부터 유리된 데는 "생활의 명이나 인간적인 실수, 과오의 시간들"과 무관치 않을 터였다.

그리고 우연찮게 다시 시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찾아왔다. 모 대학의 평생 교육원에서 시에 대한 강의를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처음엔 거절을 하였는데) 사람들 앞에 서서 시를 논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창작의 시간 속으로 빠져들었다.

"몇 편을 제외하고 최근 삼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쓴 작품"인데, 평생교육원 강의의 열매가 시작 시간과 동일하다. 다시 시를 쓰면서 처음 일년 동안은 "습작기 시절처럼 많은 시를 써서 버려야만 했다"며 그



는 문정 같은 표정을 지었다.

"처음엔 손이 풀리지 않았어요. 더욱이 하던 일이 어려워지면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일이 많았죠. 그런데 늘 동전을 쥘 꿈이었는데, 하다못해 동맹이를 주워도 손바닥을 펴면 동전으로 변해버리곤 했어요. 어느 날부터가 꿈속의 동전의 시간을 유년의 기억과 짐작해 시를 쓰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한 편의 시를 그렇게 정성을 다해 다듬었던 경우는 처음이었죠. 이번 시집에 들어 있는 '무마니아 동전'이 바로 그 시입니다."

이후부터 시를 쓰는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 그것은 뭐랄까. "풍경이나 사실 등이 작품 속으로 들어와 시행이 돼 가는 과정이 눈에 익어갔다"는 것이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이번 작품집의 시들은 각 부마다 약간의 짙을 형성하고 있다. 시의 분명

이기도 한 전통 서정시를 전직하면서도 새로운 시의 발성을 고민했다.

"발해에서 온 비보 같았다/ 내가 아는 발해는 두 나라의 해안을 간직하고/ 있었던 미쁘장한 한 여자였다/ 마을에서는 유일하게 자전거를 다루어 들을 달리던/ 선친의 어부이기도 하였다/ 학교가는 길에 들렀던 일본 상점의 이름들/ 사관처럼 늦게까지 외고 있었다..."

표제시 '발해로 가는 저녁에서도'는 어머니의 죽음을 사리지 않는 제국의 이름인 '발해'와 동일시해 드러낸다. 화자는 최대한 짧은 발성을 매개로 가족사에 얽힌 고단함, 장삼이사들의 이야기, 당대의 현실에 드리워진 모순 등을 각기 다른 음색으로 그려낸다.

이경림 시인은 해설에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그 소소한 일상들은 사라진 시간의 저편과 닿아 있고 그것은 내 존재의 뿌리 어머니에서 비롯된다"고 평한다.

그는 앞으로도 시의 길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시와 가까이 지내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가는 게 작금의 과제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시의 몸이나 목소리에 깊은 깨달음의 시간이 올 때까지 시의 화살을 던져보려 합니다. 모든 것이 스러진 자리에서 모든 것의 흥망성쇠를 한 발의 화살에 꿰어 쏘아 올리는 지점이 시의 지점이지요."

한편 정운천 시인은 1991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했으며 계간 '시와 사람' 편집 주장을 역임했다. 지금까지 '생각만 들어도 따스한 마을의 이름', '탱자꽃에 비기어 대답하라'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동아시아 시화에 나타난 화조풍월

은암미술관 3일 여순중 강연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은 '빛고을 힐링 나들이·미술관 탐방' 네 번째 프로그램 3일 오후 3시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에서 주관하는 2019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중 하나다.

"동아시아 시화에 나타난 화조풍월(花鳥風月)"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강의에는 여순중(사진) 전 일본대학 교수가 참석해 동아시아 미술 장르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산수화, 화조화, 사군자, 문인화에 대한 설명을 들려준다. 이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한·중·일 시시화의 주요 소재인 '화조풍월(花鳥風月)'의 미의식



이 시화 작품에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장승업의 '화조도'를 비롯해 일본과 중국 작가 작품을 등구체적인 그림을 통해 설명하며 동아시아 미술 미학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전화와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다음 강의는 오는 31일 김현덕 천연염색 작가를 초청해 '전통 쪽 염색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한다. 문의 062-23-529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부채·토기...여름방학 선조들의 지혜 엿보다

국립나주박물관, 7일까지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화수)은 여름방학을 맞아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오는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여름방학 교육', '특별전 연계교육', '1박2일 달빛 역사여행'(캠핑 프로그램) 등이다.

먼저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여름방학 교육 프로그램 주인공은 '부채', '토기'이다. 더운 여름의 필수품이었던 부채를 소재로 한 '건강한 부채 이야기'에서는 건강을 상징하는 '십장생' 그림을 그려보는 체험이 예정돼 있다. '발끝으로 밟는 토기'는 선사 시대 사람들의 유물인 토기를 토대로 직접 토기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다. 6일부터 7일까지 각 2회.

박물관에서의 특별한 하룻밤을 즐길 수 있는 '1박2일 달빛 역사여행'도 진행



된다. 마한의 역사와 나주의 문화에 대해 배우며 박물관에서 캠핑도 할 수 있다. 초등생 이상 포함된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되고 있는 특별전 '깊이깊이 흥할 땅, 장흥'과 연계한 '내 손으로 쓰는 장흥의 보물'도 이어진다. 다양한 장흥의 문화재를 나만의 개성 있는 손 글씨가 적힌 탐블러로 꾸며 보는 시간이다. 참가비 무료. 문의 061-330-7822, 782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판소리·탱화·가야금 병창 등 전통문화예술 배우세요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30일까지 하반기 수강생 모집



지난달 전통문화관에서 진행된 전통다례 강의를 받고 있는 수강생들 모습.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오는 30일까지(선착순) '2019 하반기 전통문화예술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하반기 강좌는 9월 9일부터 12월 21일까지 매주 1회씩 총 15주에 걸쳐 진행된다.

모집 부문은 ▲판소리 초급반·중급반 ▲판소리고법 ▲가야금병창 ▲전통음식의 보양음식과 약선간식 ▲탱화 ▲전통다례 ▲민화 ▲청소년 가야금병창 등 총 12개 부문이며, 각 강좌마다 15회씩 진행된다.

강사는 ▲판소리 박미정(시도무형문화재 제16호 판소리춘향가 전수조교), 방성춘(제16호 판소리춘향가 보유자), 이순자(제1호 남도판소리 보유자) ▲판소리 고법 김남중(제11호 판소리고법 보유

자) ▲가야금병창 이영애(제18호 가야금병창 보유자), 황승욱(제18호 가야금병창 보유자) ▲전통음식 최영자(제17호 남도의례음식 보유자), 이애설(제17호 남도예음식 보유자) ▲탱화 송광무(제제21호 탱화 보유자) ▲전통다례 강애심(한국전래원광주시 동구지역원장) ▲민화 성혜숙(광주전통민화협회장) ▲청소년 가야금병창 문명자(시도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병창 보유자) 등이다.

수강료 10만원(재료비 별도). 문의 062-232-1502. /유연재 기자 yjyou@

예술인 창작준비금사업 광주문화재단 지원신청 서비스

광주문화재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19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지원 신청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번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업신청일 이전까지의 실적증빙이 가능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창작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대상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들로 가구원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75%이내이며,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20~200%이내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우편은 2일까지, 온라인은 16일까지다. 참여제한 대상, 필수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2-670-743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청소년영화제 영상작품 다음달 2일까지 공모

'제21회 한국청소년영화제'가 오는 9월 2일까지 영상작품 공모·접수를 진행한다.

(사)백지청소년사회교육원과 한국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영화제 슬로건은 '1318의 창, 함께 더 높이!'.

공모 부문은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등 러닝타임 25분 이내 작품으로, 주제는 자유롭게 정하면 된다. 타 영화제 수상작 및 TV에 방영된 적 없고 지난해 10월 이후 직접 기획·제작한 작품이어야 한다.

출품작은 영상미디어 전문심사위원

접수 80%와 청소년 심사위원단 40명의 접수 20%를 합해 심사한다. 본선진출 선정작은 9월 28-29일 광주독립영화관 G시네마에서 상영된다.

청소년 심사위원단이 함께 모집한다. 한국청소년영화제 본선 진출작 심사, 청소년심사위원단장상 작품 선정 및 시상 등을 맡게 되며, 이번 영화제에 작품을 출품하지 않은 만 15-18세 청소년이면 지원 가능하다. 한국청소년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지원서와 서약서 양식을 받아 이메일(macji1318@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368-8041.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어려분~ 부자되세요!

(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

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행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
☎062)232-0038, 010-2290-0038

클로버 부동산

북구 필동로11번길 6 (평화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팔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
☎ 010-5707-6676

루팡닭강정

북구 용두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맛, 달달한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 010-3844-7145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예천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공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학산운명감정원

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공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
원장 전홍석 ☎ 010-8003-9000

태극익스프레스

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꾸니 무료
친절.신용.분위
☎062)222-2424, 011-664-2202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관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무크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임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치어), 사브사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그집고기

북구 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침단 2지구 문화실험 뒤)
편·돼지고기 전문·달걀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교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공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수업만들기
☎010-3906-1718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컴비블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